

벤처기업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글_ 이경원_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을 망라한 벤처부문의 최근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 'M&A' 등이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투자자들과 정부의 관심 속에서 양산되어온 벤처기업들이 2000년 하반기 이후의 거품붕괴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실적악화와 시장전망 불투명에 의한 투자부진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 징후들이 경영권분쟁, M&A, 청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들에 대한 정리와 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비효율적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 행태의 목표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가치가 충분히 하락하였고,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벤처기업 구조조정의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우선 현재 벤처부문을 둘러싼 시장은 신규투자시장과 회수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조정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데에 있다. 특히, 미공개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private equity market)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기업간 win-win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M&A가 활성화되지 못함에는 M&A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실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없는 기업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이 오히려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벤처투자의 침체에 따라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2001년 대규모 프라이머리CBO 발행(2004년 만기)으로 그것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벤처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과거의 시장에서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과 효율성 추구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효율적 시장 환경으로의 정비를 통해 진정한 벤처기업들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취약한 국내 미공개기업 거래시장(private equity market)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근거법과 활동영역에 대해 세분화되어 있는 현 미공개기업 거래시장의 장벽을 허물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의 강조점을 변동시켜 가며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이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머니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